# ‘K팝 아이돌을 꿈꾸다’…뉴욕 한복판서 글로벌 오디션

### ‘K-FAN 페스티벌’ 10개팀 본선 경합
### 한국 연예 기획사 10여곳 인재발굴 참관

글로벌 K팝 인재 발굴 프로젝트인 ‘K-FAN 페스티벌’은 30일(현지시간) 오후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에일리스튜디오에서 오디션 행사 ‘K-FAN 페스티벌 &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개최했다. 사진은 프리스타일 경연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K팝 아이돌 지망생들이 한국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 앞에서 실력을 뽐내는 오디션 무대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열렸다.

글로벌 K팝 인재 발굴 프로젝트인 ‘K-FAN 페스티벌’은 30일(현지시간) 오후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에일리스튜디오에서 오디션 행사 ‘K-FAN 페스티벌 &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개최했다.

북미 지역 100여개 지원팀 중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이날 본선에서 숨은 실력을 겨뤘다.

이날 행사는 딱딱한 오디션 형식이 아닌 K팝 댄스 공연 형식으로 치뤄졌고, 각팀의 공연이 끝난 후에는 프리스타일 댄스 경연도 이어졌다.

자신을 뉴욕 출신이라고 소개한 3위팀 엔시틴즈(NCTEENZ)의 멤버 카린 코즈루-살리포스카는 “오늘 다소 긴장되긴 했지만 재미있게 즐겼다”며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 싶어 오디션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디션 우승팀인 제제(JEJE)의 멤버 제이컵 코미어는 K팝의 매력에 대해 “다양한 그룹마다 각각 저마다의 개성이 있다는 데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하이브 산하 ADOR·플레디스·쏘스뮤직를 비롯해 스타쉽, 모어비전, 젤리피쉬 등 연예 기획사 10여곳의 실무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끼와 재능이 넘치는 K팝 스타 후보생들을 지켜봤다.

국내 한 연예기획사에서 이날 행사를 보러 참가한 원대연씨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의 무대가 이어져서 재미있게 지켜봤다”며 “K팝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만큼 세계 각지의 인재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K-FAN 페스티벌의 임오혁 제너럴 매니저는 “오늘 행사가 많은 기획사 관계자와 이어질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세계적인 K팝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들이 많은데 이 행사를 통해 제2의 BTS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정미 제너럴 디렉터는 “외국에서 인재를 찾기 원하는 한국 기획사들을 한자리에 모으자는 의도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10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기면서 오디션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연 형식으로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해변·카페 등 공습한 이스라엘…가자지구서 70여명 사망

### “인파 몰린 시설, 경고없이 타격”
### 구호품 수령 민간인도 희생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총격으로 최소 70여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장 큰 인명피해는 북부 가자시티의 한 해변 카페에서 발생했다. 피서지 휴양시설인 이 카페는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각종 모임을 하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곳인데, 이스라엘군은 이곳을 전투기로 폭격했다.

가자시티 내 알시파 병원은 이번 폭격으로 30명 이상 사망했으며, 50명 넘게 부상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 다수는 위중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카페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인 알리 아부 아틸라는 공습 당시 여성과 어린이가 많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경고 없이 전투기가 그곳을 타격했고, 건물이 지진처럼 흔들렸다”고 AP통신에 말했다.

NYT 사진기자는 공습 직후 현장에 도착해보니 곳곳에 카페 잔해와 개인 소지품이 나뒹굴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흘린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훼손된 시신들이 널려 있고, 부상자들이 담요에 싸여 이송되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에서 “범죄 점령군(이스라엘군 지칭)의 항공기가 해변의 휴게소에 모인 무고한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습했다”고 비난했다.

가자시티의 거리 한 곳과 가자 중부 자와이다의 건물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각각 15명과 6명이 숨졌다고 현지 의료진이 밝혔다.

또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유니스에서 식량을 구하려던 민간인 11명은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과 연계된 지원 장소에서 돌아오던 중이었다고 나세르 병원이 전했다.

이 밖에 가자 북부의 유엔 구호창고에서도 10명이 사망하는 등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가자지구 곳곳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연합뉴스

# ‘러 위협’ 확대에 덴마크도 여성 징병 개시

### 복무 기간도 4→11개월로 늘려
### 노르웨이·스웨덴 등은 이미 도입

덴마크가 1일(현지시간)부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 제도를 시행하고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래 거세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투자를 늘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덴마크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에 따른 징병 대상에 포함된다.

덴마크는 일단 남녀 모두 지원병으로 받되, 모자라는 병력은 추첨에 따른 징병으로 채우고 있다.

예전에는 남성만 징병 추첨 대상에 포함됐다.

양성평등 징병제 개혁은 지난해에 합의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당초에는 2027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올해 여름으로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덴마크 국방부의 징병 책임자인 케네스 스트룀 대령은 AP에 이번 방침이 “현재 안보 상황”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덴마크는 여성의 지원병 입대를 1970년대 초부터 받아왔으며, 지난해 지원병 입대자 중 약 4분의 1이 여성이다.

덴마크 인구는 600만명이며, 직업군인은 약 9천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4천700명이었던 의무복무병의 수는 이번 양성 징병제 시행에 따라 2033년까지 6천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면서, 복무기간 중 첫 5개월은 기초 군사훈련 기간으로 정했다.

덴마크의 이웃 국가들 중 노르웨이는 2013년에, 스웨덴은 2017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징집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 중국계 미국인 인플루언서
### 남극 무단 비행했다 구금

중국계 미국 국적의 한 인플루언서가 소형 항공기를 직접 운항해 무단으로 남극에 착륙했다가 당국에 구금됐다.

칠레 민간 항공기 규제 담당기관인 항공청(DGAC·Direccion General de Aeronautica Civil)은 “지난 28일(토요일) 세스나 182 항공기 1대가 관제센터에 알리지 않고 남극 테니엔테 로돌포 마시 마르틴 공항(킹조지 섬 소재)에 착륙했다”며 “항공기 조종사는 현지에 구금 조처됐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칠레 항공청은 항공기 조종사가 애초 칠레 남단 푼타아레나스 주변 상공 비행 계획을 담은 문서를 제출해 놓고 이를 어기고 남극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칠레 당국이 수상한 항적을 보인 이 소형 항공기에 대응해 경보 프로토콜을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일간 라테르세라와 엘메르쿠리오는 당국이 조종사 신원을 이선 궈(Ethan Guo)로 특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계 미국 국적자인 궈는 파일럿이자 유명 인플루언서다. 이날 현재 확인되는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29만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8월 궈에 대해 다룬 AP통신 보도를 보면 당시 19세였던 그는 “소아암 연구 기금 모금을 위해 세계 7개 대륙을 비행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적 있다. /연합뉴스